



장마... 양파값 급등 장마철과 함께 각종 채소값이 오르면서 양파값도 급등하고 있다. 23일 광주시 각화동 농수산물시장에서는 20kg들이 양파 1포대가 1만3천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두배나 올랐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여수엑스포·호남고속철도 조기 완공·문화수도 조성

예산 우수수 삭감 '초비상'

정부 각 부처가 2009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광주·전남지역 현안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있어 각종 현안 사업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정권 교체로 정부 부처의 호남 인맥이 크게 위축된데다 18대 국회 원 구성 및 상임위 배정이 미뤄지면서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도 별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 지역 예산 확보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23일 문화관광부 관계자에 따르면 내년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 예산은 총 666억원으로 올해 예산(917억원)에 비해 무려 28% 삭감된

체로 기획재정부로 넘겨졌다.

전남 동부권의 발전 축인 광양항 관련 예산도 대폭 삭감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에 따르면 내년도 광양항 관련 예산은 1천870억원으로 올해 예산 2천497억원에 비해 무려 26% 가량 감액돼 기획재정부에 넘길 삭감 방침에 따라 광양항 관련 예산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항만 활성화가 절박한 광양항의 경우 재정 투입이 확대돼야 한다는 점에서 일괄 예산 삭감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또 여수엑스포 국고지원사업 예산

확보도 차질이 예상된다. 여수엑스포 국고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2천 500억원 규모지만 국토부가 내부적으로 조정하고 있는 예산 규모는 1천 800억원으로 축소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수엑스포 조직위 관계자는 "현재 국토부와 예산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를 위해서는 내년도 예산이 최소한 2천억원 이상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사업인 호남고속철도 조기 완공도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호남고속철도를 2012년까지 조기 완공하기 위해서는

기본설계 변경, 조기 용지 보상 등 공사 비용을 크게 늘려야 하나 국토부는 내년 예산을 오히려 기본계획(2017년 완공)상의 재정운용 계획(2009년, 272억원)에 비해 10억원이 삭감된 262억원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호남고속철도의 조기 완공이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라도 민주당이 쇄고기 협상 파문으로 국회 등원을 거부,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의 상임위 배정마저 안돼 지역 정치권도 별 역할을 못하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黨政靑 “쇠고기 고시 주내 추진”

정부와 한나라당은 23일 추가협상 타결에 따른 '쇠고기 고시'를 빠르게 이번 주 내에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관련기사 3면>
당정청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쇠고기 고시 문체와 관련한 긴급 당정

회의를 열고 쇠고기 고시 내용 및 시점에 대해 논의한 결과 이 같이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같은 여권의 입장은 국민 의식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고시를 미룬다는 하루 전 입장과는 조금

달리 고시 시점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어서 야당 등의 반발이 일고 있다.

조순선 대변인은 이날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정부는 추가협상이 끝나고 대책도 마련됐으니 (고시) 하자는 의견을 냈으나 우리는 아직 안

전에 대한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만큼 고시 게재 전 설명하는 기회를 좀 더 갖자는 입장이었다”며 “여건이 되면 금주 내에도 (고시 게재)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도 “금주 내 고시를 하기로 했다”면서 “고시 날짜도 정해졌지만 정부가 얘기하는 것은 마땅치 않고 당 쪽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기아차 운송대란 길어질 듯

운송료 인상안 화물연대 광주 카캐리어 지부서 부결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의 완성차 운송을 담당하고 있는 화물연대 광주지부 카캐리어분회가 화주 측의 운송료 인상안을 부결시키면서, 파업사태가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로 인해 기아차의 수출 차질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화물연대가 협상 최종 결렬시 모든 투쟁력을 기아차에 집중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파업사태가 악화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23일 화물연대 광주지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현대기아자동차 물류계열대가 협상 최종 결렬시 모든 투쟁력을 기아차에 집중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파업사태가 악화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23일 화물연대 광주지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현대기아자동차 물류계열대가 협상 최종 결렬시 모든 투쟁력을 기아차에 집중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파업사태가 악화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카캐리어분회는 지난 13일 화물연대 파업 돌입 때부터 수출용과 내수

용 운송료 45%, 35% 인상과 유가연동제 도입 등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화주인 글로벌비즈측은 현대차 울산지부 등 타지역 사업장과의 형평성을 들어 22% 인상안과 유가연동제 추후 합의를 고수했다.

광주공장의 협상 난항이 계속되자 글로벌비즈측은 울산지부와 협상을 진행했던 임원들을 지난 22일 밤 광주로 보내 화물연대 광주지부와 협상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목표항 27%·군산항 25%·광택항 20%(+α) 운송료 인상에 최종 합의했다. 그러나 화물연대 광주지부는 23일 오후 조합원 투표 결과를 이를 거부하기로 했다.

카캐리어 조합원들은 목표항 1회 운행시(승용차 5대 수송) 16만6천원을 받고 있지만 기름값 12만4천원에 달하는 등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어,

에초에 운송료 기준이 높은 울산 및 수도권지부보다는 운송료 인상폭이 훨씬 높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조합원들은 “완성차만을 실을 수 있도록 개조된 카캐리어 차량은 완성차를 내려주고도 빈차로 돌아올 수밖에 없어, 군산과 광택항 등 장거리 운행에는 적자가 불가피하다”며 “인상률이 최소한 35% 이상은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화주측과 조합원들의 온도 차이가 크지만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될 가능성도 있다. 이날 협상안이 부결된 직후에도 화물연대 광주지부와 글로벌비즈측은 곧바로 재교섭에 들어가 마라톤 협상을 벌였고, 일정부분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복지법인 인가 개입 비리·취업 뒷돈 챙긴 혐의

광주시의원 사전영장

광주시의회가 의원들의 잇단 추문과 비리 의혹으로 시민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

<관련기사 5면>
광주시의회 일부 의원들은 성폭행 의혹에 연루돼 최근 여성단체 회원들이 시의회에서 파켓시위를 벌이는 사태가 벌어지는가 하면, 또 의원이 복지법인 인가과정에서 부당개입하고 취업알선을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광주시의원들의 잇단 추문에 시민들은 시의회에 대한 혐오는 물론 지방의회 무용론까지 거론하고 있는 실정에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광주 N복지법인 설립인가 비리 의혹을 수사해 온 광주지방경찰청은 23일 복지법인 토지매입 비용 등의 명목으로 거액을 가로챈 광주시의회(60) 의원에게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N복지법인 설립인가를 해주는 과정에서 K의원으로부터 향응을 받은 광주시청 공무원 K(49·5급)씨를 수뢰 혐의로, N복지법인 대표이자 K의원의 장남 K(35)씨를 배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의원은 지난해 9월 자신의 아들 명의로 광주시 관산구 신가동의 N복지법인 설립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K(·48)씨에게 ‘허가를 받은 뒤 대표이사 명의를 넘겨 주겠다’고 속여 토지매입 비용 1억4천500만원과 담당 공무원에 대한 로비 자금 명목으로 1천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K의원은 또 광주은행이 광주시 금고로 지정되는데 도움을 줬다는 이유

로 지난해 6월 은행 측에 가능직 여직원의 취업을 요구한 뒤 취업 희망자에게 1천만원의 뒷돈을 받아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S의원과 또 다른 K의원 등은 성폭행 연루 의혹이 일어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등 지역 여성단체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기도 했다.

/최권일·김지을기자 cki@kwangju.co.kr

제 53회 호남예술제 최고상 작품 시상전·심사평 ▶ 14·15면

보존식 관리 지침(2008년 7월 22일부터 시행)

우수 국내 기술력의 자존상!
최대한 전국 SNS시스템

국내유일 냉동보존식전용 디지털 냉동보존고

대리점
모 집

순천, 여수, 광양지역
목포, 나주, 무안지역

대리점

푸른유통

062-385-2939 / 1588-6739